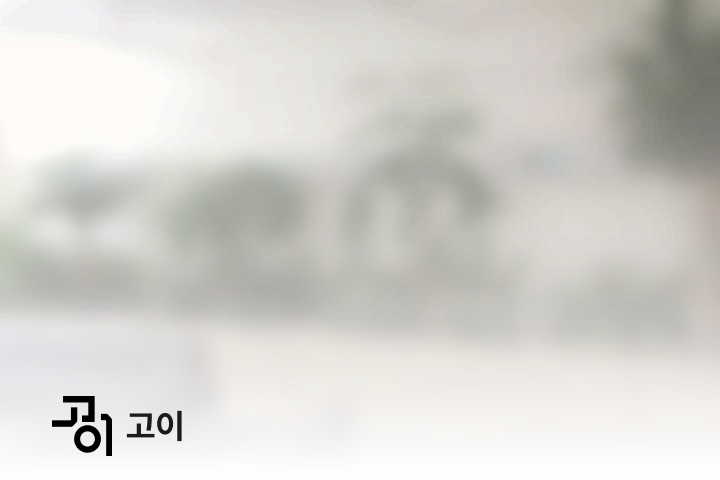


고이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는 가족께

병원을 알아보고, 집과 병실을 오가고,
일과 간병을 함께 챙기고.
그 마음 잘 알아요.

먼저, 마음부터

조금이라도 편안하셨으면, 그 마음이실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도, 더 해 드리고 싶은 것도,
이 길이 맞는지 자꾸 되묻게 되는 것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스피스는

그분답게, 오늘을 잘 지내시는 곳이에요

통증과 불편함을 덜어 드려요

좋아하시는 것과 함께
음악, 미술, 하고 싶으셨던 일도 함께해요.

가족의 마음까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가족도 곁에서 도와요.

지금은 손 한 번 더 잡아 드리세요.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국가건강정보포털,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 병원마다 달라요.

1. 전화하실 때

병원에 물어볼 것

1. **대기가 몇 명이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가 취소되거나 밀리기도 하나요?

2. **며칠까지 있을 수 있나요?**
   정해진 법적 기한은 없고 병원마다 달라요.

3.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면회 시간과 상주 여부가 병원마다 달라요.

4. **간병 도움이 있나요?**
   일부 병원에는 돌봐 주는 분이 있어요.

5. **어디까지 치료해 주나요?**
   항생제, 영양제, 수혈을 물어보세요.

2, 4번은 중앙호스피스센터·국가건강정보포털, 1, 3, 5번은 먼저 겪은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2. 외래 상담 전

챙길 서류

1. **말기 진단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말기이거나 호스피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2. **의무기록 사본**
   최근 검사 결과와 지금 쓰는 약

3. **최근 영상 CD**
   CT, MRI 등. 새 병원 의사가 봐요.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 호스피스과가 있으면 주치의가 바로 의뢰할 수 있어요. 없다면 이 서류로 다른 병원 외래에 가시면 돼요.

시설마다 다를 수 있고 특정한 문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것은 외래 상담을 예약하실 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안내 책자(2026.8), 국가건강정보포털

3. 비용

여기서 갈려요

1. **암 환자는 진료비의 5%**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다른 질환은 더 높을 수 있어요.

2. **병원 종류와 병실**
   4인실인지 1인실인지에 따라 달라요.

3. **돌봐 주는 분이 있는지**
   식대도 따로 들어요.

상담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경우엔 한 달에 얼마쯤 드나요?"

상급종합병원 다인실은 하루 약 2~3만 원이에요(예시). 출처: 중앙호스피스센터,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부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곁에 계시는 시간이 먼저예요.
언젠가 필요하실 때, 그때만 펼쳐 보세요.

먼저 겪은 가족의 말

막상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다 보니,
마지막을 허둥대며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가족, 2026년 2월

여기까지 알아보시면서

마음이 내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요양병원과 호스피스를 알아보시는 동안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면회도 기간도 병원마다 하나하나 물어보셨지요.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소견서, 의무기록, 영상 CD까지 챙기셨지요.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을 거예요.

고이는 이런 어려움을 **그 이후 과정에서만큼은**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장례의 순간에는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봐 왔어요

슬퍼하실 겨를도 없이
또 애쓰셔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01 거절하기 어려워서
경황없을 때 더 비싼 것을 권유받기도 해요.

02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서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03 처음 들은 금액과 달라서
나중에 더 내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곁에 계시고 싶은 순간에도 알아보셔야 했던 가족들

가족의 이야기

슬퍼할 겨를 없이 일단 상조회사부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낸 가족, 2025년 5월

가족의 이야기

장례식장,상조 등등 절차를 … 기차안에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가족, 2025년 5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실 시간을
알아보는 데 다 쓰지 않으시도록,
그러지 않으셔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맡기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어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고이는
장례식장 여러 곳에 전화해 빈 곳과 값을 비교	장례식장 **비교해서 알려 드려요**
화장장 날짜와 시간을 직접 확인	화장장 **예약까지 챙겨 드려요**
장지 수목장, 봉안당을 찾아다니며 비교	장지 **원하시는 조건으로 비교하고 현장 답사를 도와드려요**

전화 한 통, 또는 홈페이지 견적 요청 한 번이면 **전담 장례플래너**가 장례 진행을 맡아요.

모르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 편에서 챙겨 드려요.

이렇게 말씀만 해 주세요

나머지는 장례플래너가 알아볼게요

아버지가 호스피스에 계세요.
나중에 어디로 모셔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이 전담 장례플래너

모실 지역만 알려 주세요. 장례식장,
화장장, 장지까지 알아봐 드릴게요.

수원이고, 수목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수원 가까운 곳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은 아버님 곁에 계셔 주세요.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그동안 가족분들은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에
온 마음을 쓰시면 돼요

- 곁에 계시기
- 이야기 나누기
- 서로 챙기기

가족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 주신 덕분에 마음 편히 아버지를 배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최서규 장례지도사와 함께한 가족, 2026년 11월

고이 · 24시간 고객센터

1666-9784

네이버에 "고이"를 검색하거나 QR로 홈페이지